

# 여수 등 전남 4개 시·군 전공노 사무실 폐쇄

### 행자부 오늘까지 시한 ... 순천·영암·완도 포함

### 나주도 폐쇄 예정 ... 민노총 '항의 나설 것' 반발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곳이 없는데다, 전남 지역에서는 전공노 사무실이 있는 총 5개 지역 가운데 4곳의 사무실이 이미 폐쇄된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7일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통합(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 기한에 맞춰 8일 나주시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단행할 예정으로 전남 지자체 중 해당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광주와 전남·북, 제주의 지자체와 교육청의 노사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권역별 노사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폐쇄 조치 대상은 '전공노

사무실'로 제한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공무원노조가 있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이 중 9곳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로 설립 등록이 돼 있다. 반면 여수, 완도, 순천, 영암, 나주 등 5개 지자체의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소속으로, 정부는 사실상 불법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여수 등 4곳의 지자체에서는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나주가 8일 시한에 맞춰 폐쇄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동·서·북·광산구

등 4개 구정에 민공노 사무실이, 그리고 남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어 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 6일 낸 성명서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과 민주노조운동을 짓밟려는 선제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어 "만약 공권력에 의해 사무실이 폐쇄되더라도 천막 등 임시 사무실을 해당 관청에 설치하고 매주 촛불집회 등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누가 대중을 무시하는가

### 신형철 칼럼



홍상수 감독의 열일곱번째 장편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가 개봉했다. (특이하게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제목이다.) 평론가들은 이번에도 일제히 별 네 개 반 이상의 평점을 부여하면서 열광했지만,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언제나 그랬듯 대체로 시큰둥하다. 아니, 늘 '비슷한' 영화만 만드는 이 감독과 늘 찬양일색인 평론가들에게 이제는 염증을 느끼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영화에는 구별도 없이 5점, 6점을 주면서, 홍상수가 뭘 찍었다 하면 8점, 9점. 이제 다 예상 가능한 점수를. 내가 보기엔 평론가들은 그냥 변태 집단일 뿐."(모 포탈에 달린 어느 네티즌의 댓글) 흥미로운 것은, 창작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물론 있지만, 이처럼 평론가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점이다.

비슷한 일이 문학 강의실에서도 펼쳐진다. 고(故) 김현 평론가의 대표작 '한국문학의 위상'(1977)을 읽은 학생들이 낸 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토로돼 있었다. "잘 팔리는 대중물이란 그러므로 미리 주어진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제시하는 척하는 나쁜 놀이이다." 대중문학과 본격문학이라는 분류법이 고리타분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한층의 평론가들이 다수의 대중을 무시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다 평론가들은 대중의 적이 되어버렸다. 내 실감으로 이것은 적어도 IMF 이후 십 수 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일이며 지식인들의 가치 하락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 2007년에 쓴 어느 글에서 나는 이런 분석을 해 본적도 있었다.

"정치(혁명)의 시대에 지식인(비평가)들의 말에는 귀담아들을 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생존)의 시대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각종 투자 전문가들이다. 지식인(비평가)들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 "변태집단"의 일일 중 하나로서 나는 창작자와 평론가들을 동시에 변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어렵고 지루한 소설이나 영화를 보거나 그것을 칭찬하는 평론가를 볼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가장 대중친화적인 소설이나 영화라고 칭송되는,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지만 한 작품을 보다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작품들이 나를 포함한 대중을 '아무 생각 없이 재미만을 탐닉하는 소비자' 정도로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아서다. 나는 거기서 '지갑을 열어, 그리고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즐겨, 넌 원래 그렇잖아.'라는 속삭임을 듣는다."

요컨대 '오로지 대중들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었다고 겸손하게 소개되는 작품들이야말로 애초 대중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면 그것들이야말로 대중을 은밀하게 무시하는 작품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전달하기 위해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과 형식을 동원하는 작품들은 대중이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끝내 버리지 않고 진지하게 말을 건네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야 한다. 상업적 실패를 무릅쓰면서도 그런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 그것을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옹호하는 평론가들이야말로 실은 대중을 존중하는 이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홍상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를 믿어주세요 고맙다.'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 말썽 공무원·도의원

### 설문조사로 가려낸다

#### 전남도공무원노조 강행... 파행 예상

전남도공무원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소위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을 추려내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7일 도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제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을 추려내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위스트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을 선별하기로 했고, 이에 전남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도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조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애초 위스트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을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설문조사를 해 직원들이 적어낸 문제 있는 간부공무원들, 의원들의 명단과 사례를 확인한 후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도지사와 의장에게 응분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나인' 역할 가능성이 있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원들의 평가에 반대한 도의회의 대응 등이 주목된다.

노조는 애초 방침대로 베스트 간부공무원들과 의원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 인원은 정하지 않은 가운데 간부공무원은 계장(5급) 이상이 대상이다.

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달 중 구체적인 설문내용, 방법을 정한 뒤 11~12월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앙축제서 '보험범죄예방 캠페인'

금융감독원 광주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 생명보험협회 호남본부는 7일 '추억의 7080 중앙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17개 시·도 2~3개 특화사업 선정 '규제 프리존' 추진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정부 집중 지원 필요

17개 시·도에 각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서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할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 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 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 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정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간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

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사업은 지자체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 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